

홍세완 시즌 첫 만루포

주말 2연전서 홈런 3방 터뜨려 KIA, 삼성 잡고 2연승 휘파람



“홍반장이 돌아왔다.”
홍세완(29·KIA)이 올 시즌 첫
장의 만루홈런을 터뜨리며 화려
하게 부활했다.

전날 연타석 결승 홈런포를 터
트린 홍세완은 15일 광주구장에
서 계속된 2007 삼성 PAVV 프로야구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만
루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4타점으로 7-4 승리를 견인했다.
지난 2003년 9월 11일 광주 두산전 이후 개인통산 6호째인 홍
세완의 만루홈런은 올 시즌 8개 구단 가운데 1호, 프로야구 통산
445호다.

2-1로 앞선 6회말 1사 만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홍세완은 2-3
볼카운트에서 상대 투수 전병호의 직구(126km)를 잡아당겨 좌
측 담장을 훌쩍넘기는 장외 만루홈런을 터뜨렸다.
홍세완은 7-6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지난 14일 삼성전서도
4-6으로 뒤진 6회 동점 2점 홈런을 뽑아냈고, 6-6으로 맞선 8회
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결승 좌월 솔로 홈런아치를 그렸다.
KIA의 삼성전 2연승이 모두 홍세완의 방망이에서 터졌다.
홍세완의 올 시즌 부활은 고통의 세월이 그만큼 깊기에 더욱
감동적이다.

2000년 해태(현 KIA)에 입단한 홍세완은 프로 데뷔 4년만인
2003년 유격수로써는 역대 최초로 한 시즌 100타점을 돌파하며 한
국 야구사를 새롭게 썼다. 한 시즌 100타점은 한국 프로야구 최
초로 35홈런을 때린 장종훈(한화 코치)이나 ‘바람의 아들’ 이종
범(37·KIA)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다.

하지만 호사다마(好事多磨)라고 했던가.
홍세완은 대기록 수립 이후 3년동안 부상의 악몽에 시달렸다.
허리, 무릎, 팔꿈치 등 안 아픈곳이 없었다.

그의 이름 앞에 어느 새 ‘홍반장’ 대신 ‘종합병원’이란 별명이
붙어 다녔다. 그래서 홍세완은 2007 시즌 시작에 앞서 “제발 아
픈곳만 없으면 좋겠다. 그러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”고 소망
을 밝히기도 했다.

다행히 홍세완은 시즌 초반이던 홈런 3개를 작렬하며 제 2
의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다.
홍세완은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“모든 게 저를 믿고 응원해
준 KIA구단과 팬들의 힘”이라면서 “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
다”고 다짐했다.

한편 이날 KIA 선발 세스 에서튼(31·KIA)은 6이닝동안 탈삼
진 6개, 3피안타, 1실점의 뛰어난 제구력으로 한국 무대에서 감
격적인 첫 승을 올렸다. /박진표기자 lucky@kwangju.co.kr

이승엽 3호 홈런

이승엽(31·요미우리 자이언츠)이 9일 만에 시즌 3호 홈런을
쏘아 올렸다.

이승엽은 15일 도쿄돔에서 계속된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스전
에서 1-0으로 앞선 3회 1사 2루에서 상대 우완 선발투수 마스부
치 다쓰요시의 바깥쪽 낮은 슬라이더(127km)를 퍼올려 좌측 펜
스를 넘어가는 투런포로 장식했다.

지난 6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한신전 이후 9일 만에 나온 홈런
으로 이승엽은 밀어서 펜스를 넘기며 타격감이 본격적으로 살
아나고 있음을 알렸다.

이승엽은 앞서 1회 2사 1루에서는 우익수 킨을 넘는 총알 같
은 2루타를 날렸지만 타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. /박진표기자 lucky@kwangju.co.kr

박찬호 ‘최악 投’

4이닝 홈런 3개 등 피안타 10개 8실점

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 산하 트리플A 마이너리그팀 뉴올리
언스 제퍼스에서 뛰고 있는 박찬호(34)가 시즌 두 번째 등판서
한 타자에게 3연타석 홈런을 허용하는 최악의 투구를 펼쳤다.

박찬호는 15일(한국시간) 루이지애나주 메타리 제퍼 필드에
서 벌어진 내슈빌 사운즈(밀워키 브루어스 산하)와 홈경기에서 선
발 등판, 4이닝 동안 홈런 3개 포함 안타 10개를 맞고 8실점 한
뒤 5회부터 존 애드킨스로 교체됐다.

지난 9일 내슈빌을 상대로 시즌 첫 등판, 6이닝 2피안타 무실
점으로 첫 승을 챙겼던 박찬호는 9새 만에 이뤄진 리턴 매치에
서 날뛰기 투구로 바리케이드 전방을 어둡게 했다.

80개를 던졌고 그 중 스트라이크가 47개에 불과했을 정도로
제구력이 형편없었다. 볼넷은 없었고 탈삼진은 3개.
박찬호의 평균자책점은 7.20으로 치솟았다. /박진표기자 lucky@kwangju.co.kr



15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KIA-삼성 경기. 6회말 1사 만루에서 KIA 홍세완이 시즌 1호 만루 홈런을 친 뒤 오른손을 들
고 환호하고 있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KIA 김진우

내달 8일 LG전 등판 예정

이달 말까지 제구력 훈련



곧 1군 복귀

내달 8일 LG전 등판 예정

이달 말까지 제구력 훈련



“생애 첫 우승 보인다”
Na Sang-yuk이 15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버타운골프장에서 열린 PGA 버라이즌 헤리티지
3라운드 5번홀에서 칩샷을 하고 있다. /AFP 연합뉴스

Na Sang-yuk, Ernie Els와 공동 2위

PGA 버라이즌 헤리티지 3R

Na Sang-yuk(23)이 미국프로골프(PGA) 투어
버라이즌 헤리티지 3라운드에서 선두와 1타
차 공동 2위에 올라 생애 첫 우승을 예고했
다.

Na Sang-yuk은 15일(한국시간) 미국 사우스캐
롤라이나주 힐트헤드아일랜드의 하버타운
골프장(71·6천973야드)에서 열린 대회 셋
째날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타를 줄여 합
계 12언더파 201타를 작성, Ernie Els(남아
공)와 공동 2위를 형성했다.

프로 18년차의 노장 제리 펠리(미국)가 1
라운드에 이어 3라운드에서 다시 선두로 치
고 올라와 단독 선두에 나섰다.

특히 2005년 투산크라이슬러클래식 연장
전에서 아쉽게 조프 오길비(호주)에게 우승
컵을 내주면서 생애 첫 우승의 기회가 무산
됐던 Na Sang-yuk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 우승의

기회를 잡았다.
올 시즌 6개 대회에 출전해 세차례나 컷으
프되는 등 성적이 좋지 못했던 Na Sang-yuk은 부
진을 깨끗이 씻은듯 이번 대회에서 절정의
샷 감각을 과시했다.

Na Sang-yuk은 3라운드 합산 페어웨이 안착률
이 81.0%로 공동 9위에 올랐고, 라운드당
퍼트수는 25.7개로 2위였다. 그린 적중률도
64.8%로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.

그러나 ‘돌아온 황태자’ Els가 공동 2위
에 함께 자리를 잡고 있는데다 마스터스 그
린재킷을 차지했던 잭 존슨(미국·204타)이
선두와 4타차 공동 5위에 올라 있는 등 우승
경쟁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

Na Sang-yuk은 펠리, Els와 함께 마지막 챔
피언십에서 우승 경쟁을 펼친다.

신인왕 후보인 앤서니 김(22·나이키골프)
은 이날 타수를 줄이지 못해 함께 2언더파
211타로 공동 34위에 머물렀다. /최재호기자 lion@kwangju.co.kr

박세리 막판 역전 우승 도전

선두 오초아와 5타차

LPGA 긴오픈 3R

김미현(30·KTF)이 미국여자프로골프
(LPGA) 투어 긴오픈 2연패의 꿈에서 한참
떨어졌다.

김미현과 동갑내기 박세리(30·CJ·사진)
는 LPGA 투어 최강의 선수 로레나 오초아
(멕시코)를 상대로 힘겨운 역전승에 도전한
다.

김미현은 15일(한국시간) 미국 플로리다
주 리유니언의 리유니언골프장(파72·6천
505야드)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1오버
파 73타를 치는 부진으로 공동9위(6언더파
210타)로 미끄러움을 탔다.

첫날 2타차에 불과했던 공동선두 오초아,
로라 데이비스(잉글랜드·이상 202타)와의
간격이 2라운드에서 5타차로 벌어지더니 최
종 라운드를 앞두고 8타차로 뒤쳐진 김미현
은 사실상 대회 2연패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
됐다.

3라운드 부진으로 우승권에 밀려난 대신
나비스코챔피언십에서 커리어 그랜드 슬램
을 아깝게 놓친 박세리는 4언더파 68타를 쳐
역전 우승의 기회를 살려냈다. /최재호기자 lion@kwangju.co.kr



보이지 않던 버디만 4개를 속아내는 끝없는
경기를 펼쳐 중간합계 9언더파 207타로 5위
로 올라선 박세리는 그러나 현역 LPGA 투
어 선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량을 뽐내고
있는 오초아를 상대로 5타차 열세를 따라 잡
아야 하는 힘겨운 여정을 남겼다. /최재호기자 lion@kwangju.co.kr